

이계 체류자 카가미의 개조 기록 4

**정숙한 아내 키요카는 상식 개변·육변기화·탁란에 저항할 수
없다**

체험판

저자: 정신능욕

“아아, 날씨 좋다.....”

이 시공간의 체류지로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다.

카가미는 발코니에서 이웃집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응?”

문득 옆집 정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이는 서른을 갓 넘긴 듯했다.

밤색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연보라색 카디건을 걸친 여자였다.

동작은 느긋하고 차분했다. 침대 시트 한 장을 펼치는 단순한 일에도 정성스레 시간을 들였다.

손가락에는 결혼반지로 보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저런 사람이 흔히 말하는 느긋한 분위기의 유부녀인가.....?)

그녀가 허리를 숙여 빨래 바구니에서 옷을 꺼내자 카디건 앞섶이 살짝 벌어지며, 흰 블라우스에 감싸인 풍만한 가슴선이 도드라졌다.

허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치맛자락 아래로 드러난 발목은 가늘었다.

그 모습을 본 카가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숙소 근처에서 우연히 맛있어 보이는 가게를 발견하고, 여행의 추억 삼아 한번 맛보고 싶어진 정도의 감각이었다.

(어떻게 가지고 놀아 볼까?)

카가미는 난간에 팔꿈치를 쥔 채 그녀가 정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가롭게 지켜보며 즐거운 궁리를 했다.

*

*

*

오후가 되자 카가미는 선물 상자를 들고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다.

선물은 방문할 구실일 뿐, 내용물은 사실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래도 근처의 제법 전통 있어 보이는 가게에서 과자 한 상자를 샀다.

“네, 누구세요?”

문이 열리자 정원에서 빨래를 널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눈꼬리가 살짝 처진 온화한 인상이었다.

열게 화장한 피부는 희고 매끄러웠다.

그녀의 이름은 히이라기 키요카였다.

“저기..... 최근 옆집으로 이사 온 카가미라고 합니다.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카가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포장된 과자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군요. 이렇게 정중하게 챙겨 주시다니. 저는 히이라기예요. 괜찮으시면 들어와서 차라도 드세요.”

“아..... 그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에 기대서.....”

간단히 인사만 할 생각이었는데 먼저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자 카가미는 조금 놀랐다.

카가미의 인상이 무해한 학생처럼 보여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 그녀에게는 경계심이 거의 없어 보였다.

카가미로서는 잘된 일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나치게 무방비했다.

“부디, 이쪽으로”

그녀는 카가미를 거실에 통과시켰다.

방은 정연하고 있어, 가구도 아주 새롭고, 아무래도 신혼 부부의 신거라는 느낌이다.

키요카는 남편이 지금 일하러 나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 글썄. 주인은 돌아가기가 항상 느리기 때문에 오늘도 밤이 될까?”

키요카는 으스스하게 웃으며 차를 끓였다.

찜질이 일어나는 컵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모습은 어딘가 어리석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카가미는 따뜻한 차를 한입 마시면 컵을 둔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쪽으로는 왔을 뿐이므로,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있어”

“확인?”

키요카가 살짝 고개를 가웃했다.

카가미는 주머니에서 “최면 크리스탈”을 꺼냈다.

탁구공만 한 투명한 구체였다.

그 안에서는 별가루 같은 무수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잠깐 이것을 봐 주시겠어요?”

「뭐죠, 깨끗하네요...

키요카의 눈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쫓았다.

이윽고 그녀의 눈빛이 흐릿하게 풀렸다.

명멸하는 빛의 무늬가 그녀를 최면 상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럼...

*

*

*

“.....어머? 미안해요. 잠깐 멍하니 있었나 봐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키요카는 눈을 깜빡이고, 이상하게 카가미를 보았다.

겉보기에는 최면 크리스털에 사로잡히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부인, 좋아합니다! 저와 사귀어 주세요!”

카가미가 갑자기 그런 것을 말하면, 그녀는 꾸준히 눈을 깜빡 놀라게 한다.

다음에, 곤란한 것처럼 웃었다.

“어머..... 그건 안 돼요. 저는 유부녀이고,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겉보기에는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녀의 상식은 이미 최면 크리스털의 암시에 의해 개변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마음껏 질내사정할 수 있는 육변기가 되어 주시겠어요? 남편 대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 주기만 하면 됩니다!”

카가미는 마치 크게 양보라도 하는 듯 터무니없는 요구를 입에 담았다.

보통이라면 격분해 뺨을 때려도 이상하지 않을 말이었다.

하지만 키요카는 고개를 조금 기울인 채 진지하게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고덕였다.

“음.....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정도라면 물론 상관없어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육변기가 되는 건데요?”

“육체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육변기로서 정액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니깐요. 육변기가 되었다면 당신의 아이를 낳아 남편의 아이로 기르는 것도 당연한 역할 아닌가요?”

그녀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상식 개변은 최면에 빠진 그녀의 머릿속에 카가미에게 편리한 논리를 심어 놓았다.

애정을 품고 남편 아닌 남자와 몸을 섞는 것은 부정이지만, 육변기로서 정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다. 육변기가 된 이상 사용자의 씨를 품는 것 또한 당연한 의무였다.

그 뒤틀린 논리에 따르면, 육변기가 되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정숙한 아내일 수 있었다.

이 이굴의 지지가 있는 한, 그녀의 정숙한 아내로서의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고, 죄책감도 안 지 않는다.

“그래서 좋으면 침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부디」

키요카는 그렇게 말해, 스커트의 옷자락을 가볍게 뺨으면서 의자로부터 일어나자, 침실을 향해라고 걸어 나갔다.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동작.

마치 손님에게 차를 권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온화하고 주저 없는 발걸음으로.

카가미의 상식 개변의 암시는, 십전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육번기가 되는 것"과 "남편 대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은 모두 이웃을 돕는 일의 연장선이자 당연히 제공해야 할 봉사였다.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윤리에 반하는가 등은 그녀의 사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건 그렇고"

침실에 들어간 후, 카가미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 봤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허리를 내린 키요카는 조용히 카가미를 올려다보고 있다.

그 눈동자는 맑고, 약간의 흐림도 없다.

그녀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상황에 납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아무래도 시작하지 않을까? 」

카가미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키요카의 얼굴이 가까이 있다.

빠격 거리는 경향이 있는 그 속눈썹의 길이, 통통한 입술의 광택.

목근에서 쇠골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라인.

카디건과 블라우스 위에서도 알 수 있는 풍부한 부풀어 달콤한 향기.

「아...

키요카가 작게 목소리를 흘린 것은 카가미가 그 풍부한 가슴을 블라우스 위에서 감싸듯이 비비었기 때문이다.

「응응...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다.

블라우스 너머로도 전해지는, 그 따뜻함과 무게.

카가미의 손은 느리지만 분명한 의도를 품고 그녀의 몸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키요카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남편에게 애무될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몸은 카가미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가디건 버튼을 제거합니다.

흰 블라우스의 버튼도 하나씩 분리해 간다.

나타난 것은, 레이스의 자수가 베풀어진, 청결감이 있는 하얀 브래지어.

"예쁘네"

"감사합니다. 남편 이외에서 칭찬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단지 솔직하게 기뻐했다.

브래지어의 걸이를 떼자, 하얗고 부드러운 쌍둥이가 흔들리고 쏟아져 떨어졌다.

벚꽃의 젖꼭지가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카가미는 그것을 입에 포함시켰다.

혀로 구르듯이 농락하면서 다른 한쪽을 손가락으로 뽑는다.

“아..... 음”

키요카의 입에서 달콤한 한숨이 쏟아진다.

그녀 쪽도 카가미의 가랑이에 손을 뻗어 바지 위에서 살짝 만졌다.

그 아래에서는 육봉이 이미 딱딱하고 폭신하다.

“이제, 서 계십니까”

“그럼, 글썄. 부인 덕분이야”

카가미는 바지 벨트를 풀고 앞 열림을 내린다.

키요카는 높이 솟은 카가미의 음경을 소중히 다루듯 두 손으로 감쌌다.

「뭐...

완전히 노출된 그것을 그녀는 양손으로 들어 올려 뺨을 한다.

“이렇게 훌륭한 것을..... 정말 저 같은 여자가 육변기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 부인같은 사람이 좋네요”

“뭐, 기뻐요”

키요카는 살며시 웃고 끝부분에 입술을 가져갔다.

혀끝에서 뒷줄을 뒤집어 귀두를 정중하게 핥아 돌린다.

“응....., 추.....”

마치 남편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헌신적인 봉사.

구강 내의 따뜻함과 혀의 움직임이 카가미를 자극한다.

「..... 음.....

그녀는 서서히 깊게 물고, 목 안쪽까지 삼켜 갔다.

(와, 대담하네. 생각보다 잘하고)

외형은 청초할 것 같지만, 역시 유부녀.

그 능숙한 봉사는 경험 없는 소녀와는 분명히 달랐다.

나름대로 경험은 있는 것 같다.

「응..... 쉼파...

키요카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밤색 긴 머리도 함께 흔들렸다.

카가미는 그 머리를 쓰다듬어 조금 허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 가득 카가미의 물건을 포함하면서 일심불란하게 혀를 움직이고 있다.

그 입술과 뺨이, 카가미의 육봉의 형태에 따라서 왜곡해 간다.

그녀가 그것을 사랑하는 남편의 것처럼 섬기는지, 아니면 주입된 육변기의 사명감에 복종하는 것인지는 이제 구별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녀의 배덕적인 헌신만은 나쁘지 않다.

"응, 좋아"

카가미는 키요카의 머리를 누르도록 하고, 더욱 깊게 허리를 내밀었다.

「응구...」

키요카는 약간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올리지만 거절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목을 열고 안쪽까지 맞이하려고 혀를 기어 놓는다.

「응...

카가미는 한계가 가까운 것을 느끼고, 키요카의 머리로부터 손을 떼었다.

"부카케를 원한다면 입을 떼어. 삼키고 싶다면 그대로 물어 뒤라."

"응....., 푸핫....."

잠시 망설인 끝에 키요카는 입을 떼고,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들었다.

카가미는 그녀의 뜻을 받아 사정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순을 향해 취급하도록 한다.

희고 탁한 정액이 뿜어져 나와 키요카의 얼굴 정면을 뒤덮었다.

「아...」

그녀는 안면에 내려오는 뜨거운 튀김에 눈을 감으면서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응....., 뜨겁다....."

도취한 표정을 띄고 있다.

정액은 콧등과 뺨을 타고 흘러 한 방울씩 떨어졌다.

입가로 흐른 정액을 키요카가 붉은 혀를 내밀어 핥아 냈다.

「후아....., 대단한 양.....질은...

「아하하, 좋아했어?」

카가미는 눈앞의 유부녀의 음란한 유양을 으쓱하고 웃으면서, 쾌적하게 바라본다.

카가미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다.

「어머...」

현관의 문 손잡이가 가차가차와 울리는 소리가 난 다음 인터폰이 익숙해지는 소리가 났다.

키요카가 소리쪽으로 눈을 돌려 눈을 깜박입니다.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남편씨?」

「네...

처음에 인터폰이 아니라 갑자기 문 손잡이를 돌려고 했던 근처에서 해도 보통의 손님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었지만, 곧바로, 그 얼굴에 헛된 표정을 띄웠다.

남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온 것인지, 무슨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다.

“뭐, 힘들어”

그녀는 조금 당황한 모습으로 일어나려고 한다.

물론 최면 크리스털의 영향 아래 있는 키요카에게는 남의 집 육변기가 되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일에 수치심도,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서 「남편 이외의 남자와의 정사를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를 불쾌하게 시킬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남아 있을 것이다.

즉, 키요카는 부정을 감춰야 해서 당황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불쾌해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몸가짐을 정돈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카가미씨는 잠시 숨어 있습니까? 」

키요카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시트 끝으로 얼굴의 정액을 재빨리 닦고, 흐트러진 블라우스의 단추를 서둘러 채웠다.

풍부한 가슴의 피부가 다시 천 아래에 숨겨진다.

하지만 침과 정액으로 생긴 얼룩은 이미 흰 천에 번져 분홍빛 유두가 비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것에 눈치채는 모습도 없고, 뻑뻑하고 발소리를 내고 침실을 나갔다.

(아하하. 그걸 알아차리지 않고 끝낼까?)

카가미는 당황해도, 방해가 들어간 것에 기분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밌게 될지도 기대하고, 눈을 가늘게 했다.

카가미는 가까이서 상황을 구경하고 싶어 “다기능 강화복”의 투명화 기능을 켜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키요카를 따라 침실을 나섰다.

“네, 지금 열어요”

키요카의 목소리가 울려 열쇠가 돌고 문이 열린다.

“야아, 지금”

“어머, 너. 어서오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남편을 맞이한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두고 간 물건이라도 있어요?”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사가 한창인 순간, 키요카의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아내의 이상한 모습을 알아차릴까? 카가미는 남편의 마음에 또 어떤 새로운 "성벽"을 심어 놓을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정식판에서 확인해 주세요.